'전세계 11억병 판매 브랜드, 블루넌의 100주년 기념 와인'

블루넌 화이트 100주년 에디션

Blue Nun White 100 Years Edition

지역	EU		
포도품종	아이렌 46% 리슬링(독일) 26% 모스카토(헝가리) 16% 샤르도네(이태리) 12%		
알코올	11%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0-12℃		
테이스팅 노트	우아하고 프루티한 스타일의 블루넌 화이트 100주년 에디션은 섬세한 아로마와 가벼운 산도, 잘 익은 살구 풍미가 잘 어우러진다. 가볍고 편하게 마시기 좋은 와인으로, 다양한 음식에 잘 어울린다. 아시안 음식, 샐러드, 치킨, 스시 등과 잘 어울리며 단독으로 즐겨도 좋은 와인이다.		
페어링 TIP	채소(샐러드)/부드러운치즈/디저트/과일		

당도 (DRY –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 FULL): 1 2 3 4 5

제품설명

블루넌 100주년 에디션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브랜드 중 하나이자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11억병이 판매된 블루넌의 설립 100주년을 맞아 출시된 와인이다. 기존 블루넌 와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며,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와인으로 전통과 모던함이 어우러진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인다.

와이너리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브랜드 중 하나인 블루넌은 지셀 존에 의해 1921년 설립되었다. 1995년 랑구스 사와 합병되면서 새롭게 태어난 블루넌은 더욱 모던하고 상큼한 와인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와인이 되었다.
블루넌은 문자 그대로 '푸른 옷을 입은 수녀'라는 뜻으로, 오래 전부터 와인은 성스러운 장소인 수도원이나 성당에서만 만들 수 있었으며,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수녀그림이 그려져 있다.
고품질의 포도원액과 어울리는 푸른색의 미려한 병모양은 다양한 계층의 와인 애호가들의 욕구를 언제나 충족시켜 왔다.
블루넌의 오랜 역사와 모던한 기풍은 크발리테츠바인에서부터 아이스바인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